

손흥민, 유럽 빅리그 100골... '차범' 넘은 또 최초 대기록

차범근 전 감독 98골 넘어 아시아 선수 최초 100호골 달성

299분 뛰며 정규리그 6호골 EPL 득점 선두...49.8분당 1골

맨유 징크스도 탈출...EPL 이적 후 11경기만에 맨유전 첫 골

부상에서 '깜짝 복귀'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공격수 손흥민(28)이 단숨에 리그 득점 선두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5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의 2020~2021시즌 EPL 4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2골 1도움으로 토트넘의 역사적인 6-1 대승을 이끌었다.

에버턴과 개막전 0-1 패배 후 정규리그 3경기 무패행진(2승1무)을 달린 토트넘(승점7)은 리그 6위로 도약했다. 반면 안방에서 참사를 당한 맨유(승점3)는 16위로 추락했다.

손흥민의 깜짝 선방이었다. 지난달 27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햄스트링을 다쳐 전반기 45분만 뛰고 교체됐던 손흥민은 회복까지 3~4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재 무리뉴 감독도 처음엔 10월 A매치 휴식기 이후 손흥민이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며칠 사이 기적이 일어났다. 손흥민은 맨유 원정길에 동행했고 무리뉴 감독도 손흥민의 출전을 지켜보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영국 현지에선 '연막작전'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결국 손흥민은 데이빙을 감고 선발로 나와 맨유를 침몰시켰다.

이날 멀티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유럽 진출 후 정규리그 통산 100골에도 성공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합부르크(20골)와 레버쿠젠(21골)을 거쳐 2015년 토트넘에 입성한 손흥민은 맨유전까지 59골을 터트리며 100호골을 완성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을 넘어 아시아 선수로는 가장 먼저 유럽 빅리그 100골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차 전 감독은 총 308경기에 출전해 98골을 넣었다. 299경기 만에 100골을 넣은 손흥민의 득점 페이스가 더 빠르다.

손흥민은 지난해 11월 차 전 감독의 유럽 무대 공식전 최다골(121골)을 넘어선 바 있다. 손흥민은 각종 컵대회 등 모든 대회에서 142골을 기록 중이다.

또한 손흥민은 EPL 이적 후 맨유전에서 11경기 만에 첫 골을 넣었다.

EPL 득점 선두에도 손흥민이 이름이 올랐다. 지난 2라운드 사우샘프턴과 원정 경기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 한 경기 4골을 몰아친 손흥민은 이날 2골을 추가하며 정규리그 6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도미니 칼버트-르윈(에버턴·5골)과 지난 시즌 'EPL 득점왕' 제이미 바디(데스터시티·5골)를 제쳤다.

출전 시간에 따른 득점 속도도 압도적이다. 299분을 뛰며 6골을 넣은



토트넘 손흥민이 4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0-21시즌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37분 팀의 네 번째 골을 넣고 맨스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손흥민은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후반 27분 벤 데이비스와 교체됐고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의 멀티 골 등을 묶어 6-1로 승리했다.

데, 49.8분당 1골이다. 참고로 바디는 71분당 1골이다.

유럽 5대 빅리그로 따져도, 손흥민처럼 6골을 넣은 선수는 독일 분데스

리가의 안드레이 크라마리치(호펜하임)와 프랑스 리그1의 이브라히마 나이안(메스) 밖에 없다.

지금 같은 페이스라면, 2016~2017

시즌 기록한 자신의 한 시즌 리그 최다골(14득점) 경신도 시간문제라 보인다.

뉴스



NC, 정규리그 우승 굳힌다...중상위권 경쟁 치열

NC 다이노스가 선두 굳히기에 돌입한 가운데 상위권, 중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NC는 지난주(9월29일~10월4일) 5승1무1패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시즌 76승4무43패를 기록한 NC는 2위 KT 위즈(70승1무53패)와의 승차를 8경기로 벌리며 창단 후 첫 정규리그 우승에 한발 더 다가갔다.

NC는 6일부터 키움 히어로즈와 3연전, LG 트윈스와 더블헤더를 포함

성적만 올리면 무난하게 우승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 싸움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가 순위 싸움의 최대 분수령이다. 자칫 연패를 당한다면 치명적이라서 매 경기 사활을 걸고 있다.

2위 KT와 7위 롯데 자이언츠(63승1무58패)의 승차는 불과 6경기다.

롯데는 지난주 4연승을 달리는 등 5승1패의 성적을 올려 중위권 진입을

서의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두산은 호세 페르난데스의 일시적인 타격 슬럼프와 김재환의 부진 등이 뼈아프지만, 허경민, 오재일, 박세혁 등 타선을 앞세워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LG 역시 2위 탈환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다소 침체된 타선이 살아나면 반등이 가능하다. 이영중, 오지환 등의 타격감은 좋다.

그러나 지난 4일 KT전에서 팔꿈치 통증으로 자진 강판한 LG의 에이스 타일러 윌슨의 공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트리플크라운(타율·홈런·타점 1위) 등 타격 다관왕을 노리는 멜로하스 주니어를 필두로 타선이 폭발하고 있다. 로하스는 지난주 5개의 홈런과 11타점을 쏟아냈다. 강백호, 황재균도 타격감을 끌어 올리고 있다.

KIA는 최근 5경기에서 12점밖에 올리지 못했다. 지난 주말 3경기를 모두 패했다. 불펜이 무너지기 일쑤고, 마운드가 선방할 때도, 득점이 필요한 순간에 타선이 침묵하고 있다.

키움은 최근 10경기에서 2승8패로 무너졌다. 14경기밖에 남지 않은 키움은 2위 이상의 성적을 위해서는 많은 승리가 절실하다. 마운드가 붕괴되고, 타선이 침체된 상황에서 활로가 필요하다.

뉴스

지난주 5승1무1패 좋은 성적 올리며 2위 KT에 8경기차

KIA, 주말 3경기 모두 패...타선 침묵에 불펜도 무너져

해 4경기를 치른다. 이번주 7연전을 통해 2위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면 한국시리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주 상대가 녹록치 않다. NC는 올해 키움을 상대로 7승6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했고, LG를 상대로 4승2무5패로 열세를 보였다.

지난주 2승을 올린 시즌 18승(3패)을 올린 에이스 드류 투진스키를 필두로 한 투수진과 양의지와 박석민 등의 활약, 최근 5경기에서 4방의 홈런을 몰아친 애런 알테어의 활약을 앞세워 1위 굳히기에 나선다.

NC는 남은 21경기에서 8승 이상의

바라보고 있다.

롯데 에이스 댄 스트레일리과 노경은 등이 후반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오윤석 등이 깜짝 활약을 선보이며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이병규, 손아섭, 이대호 등 베테랑 타자들의 타격감이 좋은 것도 희망적이다.

5위 두산 베어스(66승4무55패)는 4위 LG 트윈스(68승3무55패)를 추격하는 동시에 6위 KIA 타이거즈(64승57패)에 쫓기고 있다.

두산은 마운드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산 에이스 알칸타라는 최근 6경기에서 5승을 쏟아냈고, 함덕주 역시 선발 투수로

황의조, 한글 유니폼 입고 교체출전...보르도 3-0 완승

윤일록은 결장...몽펠리에, 남에 0-1 패배

프랑스 1부리그 리그앙 지롱댕 보르도의 공격수 황의조가 한글 유니폼을 입고 교체로 출전해 팀의 승리를 도왔다.

보르도는 4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누보 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치러진 디종과의 2020~2021시즌 리그앙 6라운드 홈 경기에서 3-0으로 이겼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황의조는 후반 18분 레미 우앵 대신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날 경기에서 보르도 구단이 추석과 한글날을 맞아 특별한 한글 유니폼을 선수단 전원에게 입혔다.

황의조를 비롯한 보르도 선수들은 한글로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디종을 제압했다.

보르도는 전반 12분 우앵의 프리킥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 뒤 전반 29분엔 사무엘 캄루의 추가골로 점수 차를 벌렸다.

보르도는 후반 44분 토마 바치시의 썬기골로 3-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 시즌 앞서 세 번의 홈 경기를 모두 0-0으로 비겼던 보르도는 안방에서 첫 승리를 신고했다.

보르도는 2승3무1패(승점9)를 기록했다.



몽펠리에의 윤일록(28)은 올랭피크 남과의 홈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뛰지 못했다. 몽펠리에도 0-1로 패배했다.

윤일록은 이번 시즌 아직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성공적 ML 데뷔 시즌' 김광현, 내일 귀국한다

메이저리그(MLB) 데뷔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7일 귀국한다.

김광현의 국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 뉴 스포츠는 김광현이 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5일 전했다.

김광현은 정부 방침에 따라 귀국 직후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칠 예정이다.

2019시즌을 마치고 포스트시즌을 통해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한 김광현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은 스포츠클럽 참가를 위해 1월31일 출국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광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메이저리그 시범경기가 중단되고, 개막이 미뤄진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 훈련했다.

한겨울 환경 속에서도 훈련에 매진한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정규시즌이 7월 개막한 이후 맹활약했다.

올해 정규시즌 8경기에 등판한 김광현은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62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마무리 투수로 시즌을 시작했다가 선발로 보직이 변경되고, 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여러 어려움과 변수 속에서도 성공적인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을 보냈다.

세인트루이스가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하면서 김광현은 데뷔 첫 해 빅리그 가을야구도 경험했다.

여자프로농구 최고령 한채진

최연소 최서연과 18세 차이

최장신은 '196cm' 박지수...최단신과 32cm 차이

오는 10일 개막하는 여자프로농구에서 최고령 선수 한채진(인천 신한은행)이 무려 18살 어린 후배와 함께 코트를 누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5일 공개한 선수 등록 현황에 따르면 1984년 3월생인 한채진이 5일 기준 만 36세 6개월 21일로 최고령 선수다.

200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5순위로 현대(현 신한은행) 유니폼을 입은 한채진은 올레로 프로 19년차를 맞는다.

최연소 선수는 용인 삼성생명의 가드 최서연이다. 최서연은 한채진이 프로에 데뷔하기 1년 전인 2002년 6월에 태어났다. 201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6순위로 삼성생명에 입단한 최서연은 5일 기준 만 18세 4개월 2일이다.

리그 최장신 선수는 정주 KB국민은행의 가드 박지수다. 박지수의 등록 신장은 196cm로, 2위인 이주영(신한은행·189cm)보다 7cm가 크다.



최단신 선수는 안혜지(부산 BNK), 신민지(아산 우리은행), 강계리(부천 하나원큐) 등 3명인데, 박지수보다 32cm 작은 164cm다.

올 시즌 등록 선수는 총 94명으로 지난 시즌 96명보다 2명 감소했다. 포지션별로는 가드가 37명, 포워드가 43명, 센터가 14명이다.

신한은행과 BNK가 각각 17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를 등록했고, 우리은행의 등록 선수 수는 6개 구단 중 가장 적은 13명이다.